

2026년 10월 22일(목) 제 3421호

한동훈,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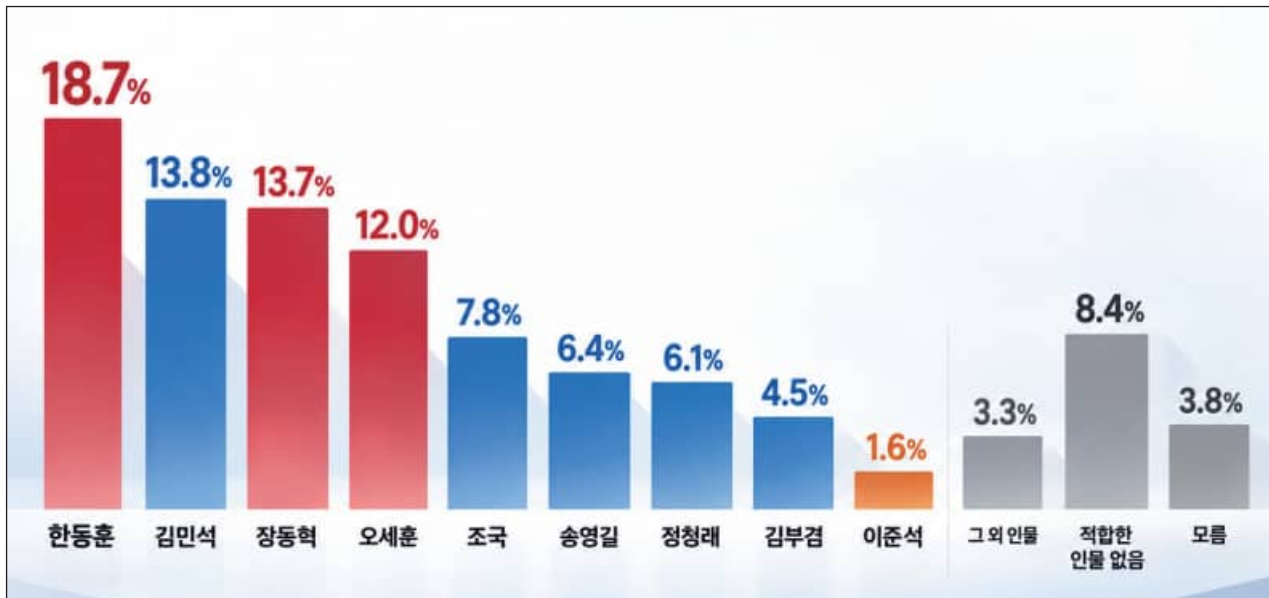
한 의원 18.7%...오차범위 밖 우세
무당층서 35.6%...중도층도 선두
김민석 13.8% 장동혁 13.7% 뒤이어
오세훈 12.0% 직전 조사서 2.1%p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

21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의원은 18.7%, 김 대표는 13.8%, 장 대표는 13.7%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7.8%, 송영길 민주당 의원 6.4%, 정청래 민주당 의원 6.1%, 김부겸 전 국무총리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물은 3.3%,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8.4%, 모름은 3.8%였다.

직전인 지난 3~5일 조사에서도 한 의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7~19일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결과

원은 18.8%에서 0.1%p가 낮아졌고, 김 대표는 14.4%에서 13.8%로 0.6%p, 장 대표는 14.9%에서 13.7%로 1.2%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 시장은 9.9%에서 12.0%로 2.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가 31.0%, 한 의원이 30.0%, 오 시장이

23.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29.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한 의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층에서도 한 의원이 2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대 ‘유령 연구원·보복 해고’ 국감 도마...“청렴도 최하위” 질타

인건비 3504만원 부당 지급 의혹
공익제보자 해고·부당관정에복직
12년간 청렴도 4~5등급 최하위 고착
양오봉 총장 “자체 조사·윤리 개선”



김문수 의원

을 받고 복직시키는 등 관리 부실과 보복성 처분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대의 청렴도 실태에 대해 “지난 1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8번, 최하위 5등급 4번을 받아 1~3등급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비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산학협력단이 대형 사업단인 데다 특임교수가 연루돼 대학에서도 기자재 구매나 환경 개선 내역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도록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논문 표절 문제 등이 불거져 크게 감점을 받았다”며 “표절 등 연구 윤리 문제를 줄여나가 청렴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2028년 국가예산 선점 나서...4조8천억 신규사업 발굴

국비 1994억...경제산업 분야 집중
AI·이차전지 기술개발·실증 중심
추가 발굴 내년 4월까지 확대

전북도가 202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4조 8,11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46건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구체화에 나섰다.

도는 21일 행정·경제부지사 주재로 ‘2028년 국가예산 1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전북의 지역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해 2028년 신규사업 146건을 발굴했다. 총사업비는 4조



202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1차 보고회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21일 열린 ‘2028년 국가예산 1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8,119억 원이며, 2028년 국비 요구액은 1,994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국비 요구액이 772억 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피지컬AI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확충

에 중점을 뒀으며, 농생명·문화관광·사회간접자본(SOC)·안전·환경·복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폭넓게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업은 ▲전북형 신산업 기업 유치·오픈 이노베이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대응 차세대 플라스마 고내식 소재 개발 및 실증 ▲종자산업 혁신를 러스터 조성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노후 문화회관의 융합형 문화시설화 시범사업 ▲임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근거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준비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시군·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해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발굴사업과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의 세부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지사 주재 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4월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등 2028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피지컬AI와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핵심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연구 “새만금 버려지는 열 활용 탄소중립거점화”

전북연구원, Energy Waste Zero 제언
미활용열 활용 냉방 전력 52% 절감
재생에너지·수소·AI 통합실증증추진
산단·항만·도시 실증성과 확산 구상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제354호 “버려지던 열, 새만금에서 새로운 에너지로”를 발간하고,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국가 탄소중립 기술 실증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경쟁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서 저장·전환·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발전·산업시설의 미활용열을 회수·재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Energy Waste Zero’를 새로운 기술·산업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국내 K사의 연료전지 미활용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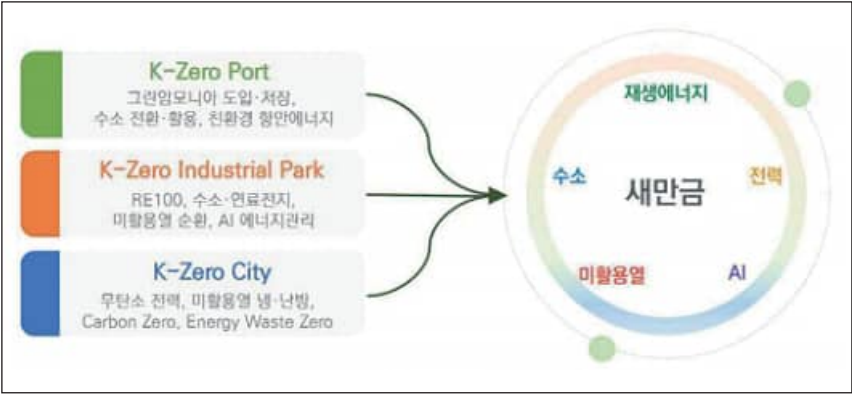
냉방기술 실증에서 일반 시스템 에어컨 대비 약 45~52%의 전력절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버려지는 열을 냉방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스마트팜·폴드체인·산업시설·도시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진은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재생에너지·ESS·수소·암모니아·연료전지·미활용열·AI를 연결하는 국가 통합실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산업단지, 새만금항 신항, 스마트수변도시, 스마트팜·폴드체인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공간을 갖추고 있어 생산부터 저장·전환·활용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연구진은 미활용열 활용기술을 출발점으로 국내 탄소중립 기술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에너지효율·안전성·탄소감축·경제성을 검증하는 ‘Energy Waste Zero 국가 통합실증’을 제안했다.

실증성과는 새만금 산업 단지의



하나의 새만금, 세 가지 K-Zero 실증공간

<전북연구 이슈브리핑 354호 중>

‘K-Zero Industrial Park’, 새만금항 신항의 ‘K-Zero Port’, 스마트수변도시의 ‘K-Zero City’로 확대하여 ‘K-무탄소 커플링 시티’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대규모 인프라 조성보다 K-기술의 단계적 실증을 우선하고, 그 성과를 핵심 기술·특허·표준·운영데이터 등 국가 기술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된 기술은 ‘K-탄소중립 패키지’로 산업화·수출하여 국가투자를 미래산업

창출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쟁은 에너지 생산을 넘어 효율적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새만금에서 국내 탄소중립 기술을 연결·검증한다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새로운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장승필 발의 농업기술정보 활용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북 정보 활용률 8% 평균 밑돌아
현장 지원 강화 활용도 제고 추진
기술보급지원단 구성·실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정보와 기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장승필 도의원

서비스(ASTIS)를 통해 토양검정, 병해충 진단, 영농상담, 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농업기술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관리·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북의 ASTIS 등록 농업인은 1만 3,842명으로, 도내 농업인 17만 1,859명의 8.05%에 그쳤다. 전국 평균 등록 비율인 8.84%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 확대와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단순히 수집·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분석·활용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활용 지원 ▲농업인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해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연구와 시범사업, 생산·가공·유통·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승필 의원은 “농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농업기술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농업인이 얼마나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술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피지컬AI, 전북 민간투자 본격 시동”

정동영 의원 주최 기업소통간담회
메가존클라우드, 100억 투자 구상
5년 내 유니콘 10곳 육성 힘 실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피지컬AI 혁신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피지컬AI 연구개발·실증 기반을 기업의 성장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9일 논의했다.

특히 이날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



정동영 의원

장이 전북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 구상을 밝히며, 전북에서 유니콘 기업 10개 이상을 키워내겠다는 목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이 주최하고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

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인철 전주시의원,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조용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회장을 비롯해 메가존클라우드, 클라우드웍스, MH소프트,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봇 등 전국의 피지컬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전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 이전 및 연구거점 설립을 희망하는 45개 기업과 업

무협약(MOU)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기업간 협력과 규제 혁신, 글로벌 기술 선도 도시 육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조용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회장은 향후 5년 안에 전북에서 유니콘 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국의 혁신기업들이 전북에 모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새로운 사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연구개

김윤덕 “체육계 농장 징계 제재 강화해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
징계 지연 40.8% 정부 제재도 0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의 성비위, 폭력, 불법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여전히 체육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24~2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윤리센터가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중 무려 40.8%에 달하는 231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접수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종합해보면, 24년 징계요구 208건 중 53건, 25년 징계요구 318건 중 144건, 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법정기한을 넘겨 징계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현행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된 행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

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고 할 지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제 식구들 감싸기 위해 방치하고



김윤덕 의원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법

적 장치마저 윤리센터와 문제부의 무대응으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9)상 90일 이내 미회신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40.8%) 중 윤리센터가 문제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조사하여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 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안하고 버티는 단체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90일 이내에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발, 실증 기반을 활용해 기술 공급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사업화와 매출, 고용 창출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화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취재단) 박남주 대표는 전북 이전을 추진하는 45개 기업의 결단이 실제 정착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에 모이는 혁신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산업화로 연결하고, 지역에 뿌리내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이 구체적인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협회가 제시한 ‘5년 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목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북 피지컬AI 사업 참여기업과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1차로 현금 100억 원을 출자

해 펀드를 조성하거나 메가존클라우드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협회를 통해 전달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기업들이 제기한 과제를 듣고, 전북도가 3천억 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와 민간자본 등을 연계해 피지컬AI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하는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산업육성펀드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메가존클라우드의 투자 구상에 대해, “좋은 기술도 시제품에서 양산과 첫 거래로 넘어가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닿을 수 없다”며 전북 피지컬AI 생태계가 구상을 넘어 실제 투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멈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4. 급제동및 급출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모토

30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전주 생·동·감 축제’

24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개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생활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생활문화센터 협회가 주관하는 ‘2026 전주 생·동·감 축제’가 오는 24일 전주덕진공원 내 전 통놀이 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



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전주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주체가 돼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이날 축제에는 라인댄스와 밸리댄스, 색소폰, 오카리나,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25팀이 그동안 갖고닦은 솜씨를 뽐낸다. 또, 문인화와 어반스케치, 유화 등 작품 전시 3팀, 한지와 민화 등 공예 체험 6팀도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동호회들은 다채로운 공

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갖고닦은 실력과 열정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물론, 동호회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도 갖게 된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에 동호회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 즐기고 전주시 생활문화예술이 한층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 사진 ‘우수작’ 30점 선정

시민 온라인 투표로 평가 지역 변화·일상 풍경 기록·공유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과 일상의 풍경을 기록한 시민들의 사진이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사진전’의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민의 시선으로 전주의 도시재생 현장을 기록한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에 출품된 총 88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우수작 30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공간 변화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지역의 변화와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는 ‘공간의 변화’와 ‘도시의 순간’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도시재생 현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민들이 직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과 일상의 풍경을 기록한 시민들의 사진이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사진전’의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사진=전주시>

접 촬영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시는 접수된 88개 작품 중 사업 대상지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작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는 시민 온라인 투표를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을 제출한 시민뿐 아니라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도 도시재생의 변화를 함께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것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달라진 공간의 모습뿐 아니라,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일상의 풍경을 담아내 지역의 변화와 기억을 기록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더했다.

시는 이번 사진전 결과물을 향후 도시재생사업 홍보와 전시, 아카이브 자료 등으로 활용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이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어렵고 낯선 정책이 아닌 우리 주변의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전주 로컬 카페인 ‘디드(DD)’와 ‘평화와평화’가 참여해 참가자에게 참여 혜택을 제공했다.

/정소민 기자

‘가을 달빛 아래, 전주 막걸리에 취하다!’

‘2026 전주막걸리축제’ 개최 23~24일 이틀간 전주비전대학교 유명 막걸리업소·안주맛집 등 참여 맛·정 넘치는 상생의 장 마련

시원한 가을바람과 은은한 달빛을 조망 삼아 전주 고유의 막걸리와 안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매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전주비전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6 전주막걸리축제’를 개최한다.

‘가을 달빛 아래, 전주 막걸리에 취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주 고유의 막걸리와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전주의 맛과 정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진다.



특히 전주에서 생산된 막걸리와 지역음식점의 먹거리를 연계해 전주만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 양조장과 음식점,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축제에는 전주지역 5개 막걸리 업체가 참여해 막걸리 시음·판매를 진행하고, 삼천동 막걸리골목 등 전주의 유명 막걸리 업소를 포함한 지역 음식점 15곳이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안주와 전주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성을 아우르는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전주의 전통과 문화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접놀이부터 비롯해 초청가수 공연, 레트로 DJ 파티 등이 축제 흥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 펠린지 등 시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이 공원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축제에 참여하며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보유한 고유한 맛과 특색을 축제 콘텐츠로 선보임으로써 전주 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전주막걸리축제는 전주 막걸리와 맛있는 안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지역 양조장과 음식점,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축제를 통해 전주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구직 청년 ‘도심 속 템플스테이’ 마련

청년성장프로젝트 일환 새벽예불·아침 명상·산행 등 지친 청년 재충전 프로그램 풍성

구직 활동에 지친 전주 청년들이 도심 속 산사에서 잠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서고사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심 속 템플스테이’의 올해 마지막 4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지친 청년들이 일상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주)휴먼제이앤씨가 운영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첫째 날 사찰 투어와 108



염주 꿇기 체험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황방산 산행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서고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년들

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들과 교류하며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처음 운영된 템플스테이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15명 모집한 1차 프로그램에 78명이 신청했으며, 참여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한 2차 프로그램에도 127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재충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육문주 전주시 청년활력과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만큼 지친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며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템플스테이가 청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AI 시대 해법 찾는다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 ‘AI 시대 삶의 변화’ 특강

전주시는 오는 11월 19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를 초청해 ‘제223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조용민 대표는 삼성전자와 IBM,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언바운드랩데브 대표이자 AI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언락 AI △언리시 UNLEASH △언바운드 UNBOUND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이날 ‘AI 시대,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주제로 AI가

바꾸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술에 도태되지 않고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후에는 조용민 대표와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보다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 접수(모집인원 450명)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역농업 선도 채소전문가 양성

제22기 농업인대학 채소과정 27명 수료생 배출

전주시가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끌 채소 분야 전문농업인 27명을 추가 양성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교육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전주시 농업인대학 채소과정’ 교육의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날 수료식까지 약 7개월 동안 운영된 이번 농업인대학 채소 과정은 총 20회, 88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 심화 전문 교육, 현장 중심의 사례 교육을 바탕으로 △토양관리와 비료 사용법 △잡초 관리 △병해충 방제 △다양한 품목(8품목)별 재배 기술 △농작업 안전 △선진지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혜민 기자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안 하면 과태료”

11월 30일 유예 종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기한 내 점검을 마쳐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현재 전북지역 공동주택 1,109개 단지, 42만 4,959세대 가운데 99.8%가 세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남은 미점검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는 2년 주기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대점검은 관리사무소나 전문 점검업체의 방문을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점검도 가능하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5개 소방서와 함께 미점검 세대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유예기간 내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진행민 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점검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완주경찰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

채인석 경감 경찰청장 표창 수상 치안협력 유공자 24명 감사장

완주경찰서(서장 손광혁)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 행사에서는 경찰관과 초청 내빈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한 해 동안 지역 치안 안정과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동체 치안의 가치를 실현하며 경찰 업무에 협력한

치안협력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감 채인석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공 경찰관 5명과 민간인 치안 협력 유공자 24명이 감사장을 받았다.

손광혁 완주경찰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동료 경찰관들과 경찰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완주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농축산물 관세 낮췄지만 물가 효과 미미”

신장식 의원 “2,653억 원 지원, 효과는 0.00272% 과수농가 부담 우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농축산물에 적용한 할당관세의 물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내 농산물 생산자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큰 하락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의 관세 인하가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국산 과일의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 지역 과수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2025년 농축산물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 추정액은 2,652억9,000만 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사료 550억6,000만 원, 바나나 371억6,000만 원, 망고 219억8,000만 원, 설랑 211억7,000만 원, 커피 193

억5,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9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관세 인하가 최종재 물가에 미친 파급효과는 0.00272%, 중간재 물가에 미친 영향은 0.0046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를 낮춰 수입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자가격까지 전달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농산물의 생산자가격과 생산량에는 하락 영향이 나타났다.

KREI 분석 결과 지난해 바나나 할당관세 시행으로 갈굴 생산자가격은 0.20%, 사과 0.16%, 복숭아 0.12%, 참외 0.11%, 포도 0.07% 각각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파인애플 할당관세 역시 사과 생산자가격을 0.14%, 포도 0.11%, 복숭아와 배는 각각 0.07%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 과일이라도 소비시장에서 국산 과일과 경쟁하면서 국내 농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북의 경우 장수·무주지역 사과와 전주·완주지역 복숭아, 남원지역 포도 등 과수 생산기반이 형성돼 있어 수입 과일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 과일과의 경쟁 심화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가격 하락률은 전국 단위 분석에 따른 추정치로, 전북지역 과수농가의 실제 피해 규모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채소류에서도 생산자가격 하락 영향이 확인됐다.

당근은 할당관세 시행으로 생산자가격이 0.93%, 생산량이 0.28% 감소한 반면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0.89%로 추정됐다. 무 역시 생산자가격은 0.18%, 소비자가격은 0.1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는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안정 효과뿐 아니라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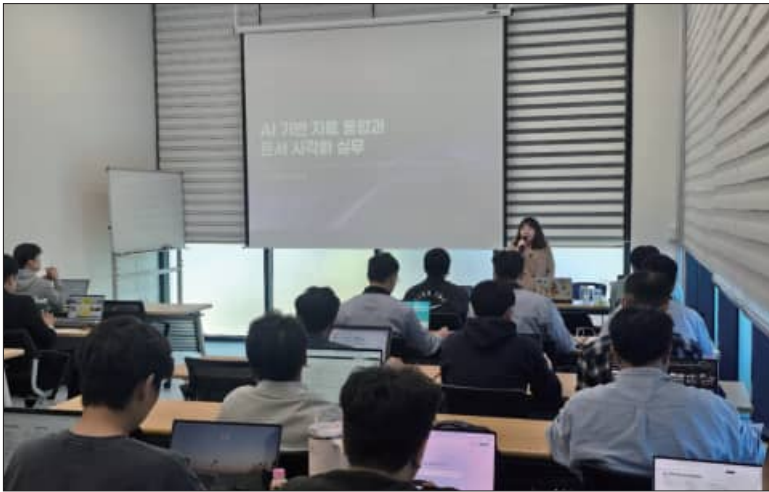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수요와 공급, 대체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돼 할당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농가 손실 추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정부는 2,653억 원에 달하는 관세지원 규모는 계산하면서 정작 그 정책 때문에 국내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의 소득과 국내 생산기반이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당관세 결정 과정에서 동일 품목뿐 아니라 대체 품목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시행 이후에는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와 농가 피해를 함께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농업 부문의 부담을 함께 검증하고, 피해가 확인되는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개최

11월 11일까지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군산상공회의소 1층 교육장에서 ‘2026년 하반기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 기업 재직자들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실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과정이다. 총 4회, 16시간으로 운영되며,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 회사 작은 AI 모델 만들기(바이브코딩) △생성형 AI를 활용한 똑똑한 업무 방법 등이다. 참여자들이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기업 업무에

필요한 방법을 익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업무 중심 교육이 진행돼 재직자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재직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재직자들이 실무에 적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동시조합장 공명선거 다짐 캠페인 함께 전개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1일 전북농협 기획업무 책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및 건전 결산 추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내 농축협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당면 현안인 건전결산과 공정한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7년도 농축

협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 편성 지침 교육 △2026년 건전 결산을 위한 추진 방향 △제4회 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교육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성훈 본부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축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 책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으로 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26년 건전결산을 달성함과 동시에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농협 전북본부는 21일 ‘2027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및 건전 결산 추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농축협 사업계획 수립 및 건전 결산

국민연금 직원들의 ‘판짓’, 행정혁신으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5건 선정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행정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판짓 in NPS’ 공모전에서 총 62건을 접수하고, 지난 20일 우수사례 5건을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실행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과 국민의 행정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대상에는 고객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상담보조 프로그램을 제작한 ‘나만의 업무도우미’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심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전국 112개 지사의 관할구역과 근무인원, 방문고객 수 등을 지도 형태로 구현한 ‘전국 112개 지사 종합정보지도’와 직원 누구나 업무에 필요한 AI 명령어를 손쉽게 작성하도록 개발한 ‘프롬프트 빌더’가 선정됐다.

프롬프트 빌더는 현재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는 현장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불편을 직접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상담보조 프로그램은 민원 응대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AI 활용 도구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과 성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상담시간 단축과 민원처리 정확도 향상 등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조직으로 확산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이를 해결하려는 열정만 ‘판짓’이 혁신의 훌륭한 출발점”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현업에 신속히 적용해 업무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바쁜 수확기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당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기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사고는 연평균 1243건, 사망자는 76명으로 치사율은 6.1%에 달했으며 전체 사고의 29.7%가 9~11월에 발생하고 10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확철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1628건, 사망자는 250명으로 치사율이 15.4%에 달해 농기계를 제외한 전체 차량의 치사율보다 약 11배 높았다.

특히 경운기는 전도·전복 및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 운행 전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을 점검하고, 좁은 농로나 경사지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주요 부위를 점검하고 화전부에 옷자락이나 신체가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농기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 뒤 점검·정비하고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안전벨트가 설치된 농기계는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 도로 주행 시에는 등화장치와 반사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쁜 수확기에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나눔과 희망의 장 열린다… 군산시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송공원 일원에서 ‘2026년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이웃과 나누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해 정(情)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군산 시민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의류, 도서, 학용품, 장난감, 신발, 가방, 운동기구, 가전제품 등 깨끗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교환하거나 판매한다.

특히 장터 참여자들은 당일 물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수익금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영수증도 발행된다.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부스와 공연도 준비된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키텔·감정쿠기·행운거북이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김치전, 닭꼬치, 떡볶이, 불어빵 등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댄스와 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누리빛마음합의체의 ‘문화나눔공연’이 펼쳐진다.

판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송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소방서, 가을철 캠핑장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정읍소방서는 선선한 날씨와 함께 캠핑과 차박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기 및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텐트 주변에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소불·불명 등 화기 사용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화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 두지 않기 △난방기구 사용 시 충분한 환기 △텐트 및 차량 내부에서 숯불·번개탄 등 화기 사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을철 캠핑은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캠핑을 떠나기 전 소화기와 전기·가스용품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화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삼학동 군산해성신협 겨울이불 기탁… 따뜻한 나눔

군산시 삼학동(동장 문양숙)은 군산해성신협(구 군산오룡신협)이 21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18대(7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겨울이불은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18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명수 군산해성신협 이사장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양숙 삼학동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군산해성신협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겨울이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 원도심·대학가 살린다 2(題)

중앙동, 청년·문화·창업 거점 부활

익산시는 심각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중앙동 일대를 살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는 건물 외관만 손보는 과거 단순 정비에서 탈피해, 공간과 콘텐츠를 동시에 투입해 원도심의 핵심 심장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3대 정부 부처 협업형 도시재생 모델이다.

현재 중앙동은 상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익산시 중앙동의 공실률은 무려 38%에 달한다. 열 집 중 네 집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이에 시는 내년 1월 예정된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중앙동 일대를 청년과 예술인, 창업가가 모여드는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방치된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바꾼다. 방치된 숙소나 집단 공실이 있는 대형 상가는 로컬 브랜드 전시관과 창업 보육시설을 갖춘 랜드마크 ‘특화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접목한다. 익산시가 일군 ‘법정문화도시’의 기획 역량을 총동원해 원도심 대표 길러 콘텐츠를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육성한다.

청년 창작자에게는 든든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인기 상품을 활용한 팝업스토어와 야외 마켓을 열어 젊은 층의 발길을 끌어들이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열어 개별 점포의 성장이 중앙동 골목 전체의 상권 활성화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군활 방침이다.

신동 대학로 도시재생 공모 도전

들인다.

셋째, ‘청년이 안심하고 머무는 주거환경 개선’이다. 노후 주택 정비는 물론 골목길 안심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차장과 방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밤길에도 불안하지 않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든다.

넷째, ‘지역공동체 회복’이다. 원광대학교와 주민, 청년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진다.

민정수 익산시 건설국장은 “신동은 원광대학교라는 든든한 지적 자산과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익산의 소중한 미래 공간”이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손을 잡고 청년 창업과 문화, 상권과 주거 환경을 유기적으로 엮어 청년들이 찾아와 머물고 꿈을 펼치는 명품 대학타운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 도의원과 현안 해결 ‘맞손’

국가예산 확보 및 도비 지원 협력 논의

김재준 군산시장이 지역구 도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성장 기회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20일 군산 지역구 도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도비 지원 등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영민 부시장, 국·소장 등 시 관계자와 강태창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우민·나종대·한

준희 도의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설명하고, 소관 국·소장 보고를 통해 산업·문화·관광·복지·보건·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건의사항 총 21건을 공유했다.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협력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 정책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군산 국제 근대문화 축전 △군산수산물 미식축제 등을 통해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의 주요 현안마다 힘을 보태온 도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군산의 발전은 시민·하천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도와 중앙정부, 국회, 정치권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며 “민선9기 군산시와 제13대 도의회가 한 팀이 돼 성장의 결실을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별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도의원들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국·도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동의안 등 안전 총 35건 의결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시장 운영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

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적인 경관보전활동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국적으로 축소된 경관보전직불제 배정면적의 회복과 2027년도 국비 예산 확충 및 합리적인 배정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지원 확대 및 배정면적 회복 촉구 건의안’(강경숙 의원)을 채택했다.

김충영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관련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순문선 의원 - 부송동 화물터미널 대책 마련 촉구 ▷순진영 의원 - 성인지예산, 관행을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황두관 의원 - 익산을 달리고, 익산을 맛보고, 익산에 머무는 … 익산형 마라톤대회 추진 제안 ▷이준영 의원 - 여행객의 가방에 달린 작은 마룡이, 익산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려면 ▷김숙영 의원 - 익산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촉구 ▷김순덕 의원 -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을 위한 전담 TF 조속 구축 및 산림 행정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직원 화합의 시간 마련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새로운 활력 기대”

정읍시가 2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읍시 직원 한마음대회’를 열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재충전하며 상호 신뢰를 쌓고, 정읍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과 이복형 시의회 의장, 시의

원, 공직자 등 9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식전 마술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전라출다리기와 신발컬링 등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올하는 정읍시 특산물(캐릭터)인 ‘1894 달하루프렌즈’를 행사장 곳곳에 활용했다. 달하루프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팬 상품(굿즈)을 선보여 직원들이 시 특산물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노래 경연

대회 ‘복면가왕’도 다시 열렸다. 직원들은 그동안 숨겨온 열정과 끼를 선보이며 유대감을 다졌고, 행사는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 활짝 웃고 소통한 즐거움이 일상 업무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굳건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29일 나태주 시인 초청강연

일상의 소중함 나누다

정읍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에서 ‘품앗’ 시인 나태주를 초청해 시와 함께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을 연다.

제122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시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정읍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정읍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에서 ‘단풍아카데미’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나태주 시인은 대표작 ‘품앗’을 비롯해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에서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시인의 따뜻한 시선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 속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사진=정읍시>

전하며 일상 속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강연이다. 시는 이번 강연이 시민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문학을 통해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 나태주 시인의 시와 함께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타운홀미팅 주제 시민에게 묻는다

11월 둘째 주 개최 예정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두 번째 타운홀미팅을 앞두고, 대화의 주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익산시는 ‘제2회 시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의 의제 선정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요 시장 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핵심 분야를 파악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민선 9기의 소통 행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문항은 주요 지역 현안을 중시

으로 구성됐으며, 익산시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네이버품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두 번째 타운홀미팅의 의제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식으로 접수된 의견도 함께 살펴 시민들의 전반적인 관심 분야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두 번째 타운홀미팅은 오는 1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의제가 확정된 후 안내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김재준 시장, 행안부 방문

군산시가 시민 생활 곳곳의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김용균 차관에게 군산대학교와 은파호수공원을 차례로 만나, 재난안전 분야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4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김 시장은 도심을 관통하는 경포천 하도정비(준설)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경포천은 하상에 쌓인 퇴적토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호우철 수위 상승과 주변 지역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제수문에서 배수갑문까지 2.76km 구간을 준설해 통수 능력

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미룡동 신관육교·미성육교 보수보강 사업도 건의했다. 두 육교는 최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내려간 시설로, 신관육교는 시내와 산업단지를 잇는 길목으로 화물차 통행이 많고, 미성육교는 군산대학교와 은파호수공원 사이에서 학생과 주민, 공원 이용객이 매일 건너는 보도육교다.

또한 2000년 설치 이후 노후화된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재준 시장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보다 미리 고치고 대비하는 것이 시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인 만큼,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명화

익산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지하 1층 홀로그램 쇼룸 ‘홀로스테이션’에서 ‘2026 홀로그램 팝업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익산, 빛으로 이야기를 잇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는 새롭게 단장한 홀로스테이션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홀로그램 기술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반 고흐의 대표작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재해석한 명화 갤러리를 만날 수 있다. 명화 속 장면에 들어간 듯한 사진을 낚길 수 있는 실감형 포토존과 홀로그램 키트 만

들기 체험, 지역 기업의 홀로그램 굿즈 전시도 마련된다.

또 전시 기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문 인증과 푸드트럭 음료 제공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11월 7일에는 ‘디지털 드로잉 대회’, 14일에는 ‘디지털 명패리기 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는 모두 무료다. 다만 디지털 드로잉 대회와 디지털 명패리기 대회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인스타그램 ‘홀로그램 팝업전’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 본격화

내년 설계·인허가, 후년 착공 계획 7368억원 규모 2030년 완공 목표 연구센터·실증·메타팩토리 구축

완주 이서면에 국내 최초의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실증단지가 2027년 설계·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21일 완주군은 실증단지 조성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절차 지원과 건축비 분담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공장 환경에서 신기술을 사전 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실증단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7,36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사업

의 핵심 기반시설로, 전북대학교 등 수행기관이 이서면 용서리 일원 약 1만 평 부지에 조성한다.

실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를 직접 움직여 실제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기술이다.

실증단지에는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실제 공장과 같은 환경을 갖춘 '실증 메타팩토리'가 들어선다. 세 시설이 실증과 연구를 한 곳에서 이어 주는 만큼, 새로운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준다.

실증단지가 건립되는 동안 수행기관은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 지원에 나선다. 개발된 기술을 도내 제조기업에 중

심으로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실증단지의 성과를 지역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9월 착수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산업 육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12월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실증단지가 들어서면 완주 기업들은 가까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다"며 "실증단지가 계획대로 들어서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산업 성장의 결실이 군민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남원시>

전북은행 남원지점, 고향사랑기부 4년 연속 동참

남원시에 1200만원 기탁 누적 기부액 5400만원 달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1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종구 부행장, 박숙녀 남원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기부금은 전북은행 직원과 가족, 조합원 등의 참여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은행 남원지점은 고향

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총 5,400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4년 연속 남원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취학 전 천 권 읽기' 시상식·책 축제 연다

24일 고운삼봉도서관서 북페어 김동성 작가 강연·책 장터 운영

완주군이 오는 24일 고운삼봉도서관과 야외 공원에서 '2026 취학 전 천 권 읽기 시상식 및 도서 북페어'를 연다.

아이들의 독서 성과를 격려하는 시상식과 함께 동네 서점, 주민이 참여하는 책 축제를 한데 엮었다. '2026 완주군 올해의 책'과 연계해 군민들의 독서 참여 열기도 함께 끌어올린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3시에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달성 어린이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천 권 읽기를 달성한 어린이 35명을 비롯해 와일드&코랄푸드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자 19명 등 총 54명에게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시상식에 앞서 오후 1시에는 '2026 완주군 올해의 책' 어린이 부문

선정작인 '꽃에 미친 김군'의 김동성 작가 초청 강연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작가와 함께 작품에 얹힌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야외 공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지역서점 6개소가 동참하는 책 장터와 주민 참여형 나눔장터(비록시장) 6개 팀이 펼쳐져 이웃 간 소통과 나눔의 공간을 꾸민다.

아울러 마술 비눗방울 공연(매직 버블쇼)과 완주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 솜사탕 쇼 등 가족 나들이객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천 권 읽기 완주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손수 꼽아 소개하는 '내가 만난 특별한 책' 전시회도 함께 열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업인 드론 활용·안전교육 참가자 모집

순창군이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 및 활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1월 10일 순창군 유등면 한국 드론 자격센터에서 진행되는 '2026년 순창군 농업인 드론 기초 및 활용 안전교육'에 참여할 농업인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작 방법을 익히고, 농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을 처음 접하는 농업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드론 활용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고, 향후 전문자격 취득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순창군 농업인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063-650-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금융상담·복지까지 '원스톱'

남원시는 금융채무와 신용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 금융 진흥원과 협력하여 금융복지 통합지원 이 동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기가 생계관란과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복지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상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원시민들은 전문적인 재무 조정 및 금융상담을 받기 위해 전 주·광주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 남원시는 월 1회 전문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1:1대면상담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금융상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금융상담 과정에서 생계 주거 고용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고, 상담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 위기 재발을 예방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융문제가 생계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재기와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배움·나눔 어우러진 평생학습 축제 31일 개막

완주군이 오는 31일 완주군청 어울림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년 완주군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배움의 씨앗으로, 함께 만드는 완주'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행사에는 평생학습기관·단체와 학습동아리 등 총 68개 팀이 참여한다. 무대공연 28개 팀과 체험·홍보·전시·먹거리 등 40개 부스가 참여해 약 1,000명의 군민이 보고,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즐기는 평생학습 축제로 꾸며진다.

AI, 민화, 자수, 퍼스널컬러 등 방문객을 위한 체험 마당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로봇과 드론, 수경재배, 인공지능 보드게임 등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한다.

운동 마사지와 허브 조경, 치유농업, 심리상담 강좌가 열리며, 완주시민대학 수강생들은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한방차 나눔, 운동 마사지 및 근육 테이핑 등 재능 나눔을 펼친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배움의 성과도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우석대학교는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어린이집 20개소와 함께 추진한 환경·사회·투명(ESG) 교육 성과물인 책 700권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문해 끝내벨'에는 성인문해 24개 학습장 학습자 중 40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이와 함께 성인문해 사회작품 약 40점을 전시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광한루원 미디어아트 성료 관람객 5만명 찾아 '호응'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광한루원 완월정 일원에서 개최한 '2026 남원 광한루원 미디어아트'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우석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대학·지역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완월정을 배경으로 미디어아트와 LED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특히 무선 헤드폰을 활용한 '사일런트 파티'는 기존 문화공연과 차별화된 이색적인 체험으로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월궁영전'을 지역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관광객의 지역상권 방문을 유도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으며 광한루원의 야간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거북목·생리통 관리 등 청소년 건강습관 형성 맞춤교육

순창군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은 지난 20일 순창북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교실'을 운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교육은 흡연 예방과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예방, 영양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등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흡연 예방 교육에서는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금연과 절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아울러, 신체활동과 비만 예방 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안내했다.

또한 영양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거북목증후군과 생리통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주제로 한의약적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도 진행해 키캡 만들기과 스트레스볼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농촌거점 12곳 주민 성과 잇는 '한마당'

23일 '누비고 한마당' 성과공유회 주민 주도 활동·거점 교류 확대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소한명)는 오는 23일 남원시 보절면 다음센터에서 2026년 남원시 시군역량강화사업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성과공유회 '제2회 누비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개의 점, 하나로 잇다'를 주제로, 남원시 12개 기초·중심지 거점 주민과 운영위원회, 마을 공동체, 주민 동아리,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 등이 함께해 각 거점의 활동 성과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주민 주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거점 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해 농촌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사에서는 목공예·서예·다카시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진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고장구·색소폰 등 주민 동아리 공연과 먹거리 나눔, 지역 특산물 판매, 스래프 투어 및 경품 이벤트 등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이번 행사는 각 거점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활동과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마을 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촌

거점 시설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배움과 활동, 소통이 이뤄지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소한명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장은 "12개 거점이 하나로 이어져 남원 농촌공동체의 활력과 가치가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 활동과 거점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남원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남원활력만들기센터와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며, 남원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전통 장류 활용 청년창업·미식관광 '새바람'

우석대 학생 3명 '삼대장국밥' 개발 창업 실험 확대 지역정착 기반 마련

순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전통 장류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먹거리로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전통 장류를 활용한 청년창업 실험공간 '삼대장국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순창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알리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발효테마파크 매콤관 내에 자리한 '삼대장국밥'은 순창을 대표하는 된장·간장·고추장 등 세 가지 전통 장류에 청년들의 정성과 아이디어를 더해 특별한 한 끼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특히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식학과 학생 3명이 교수진과 함께 직접 메뉴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학생들은 순창 장류의 깊은 맛을 살린 국밥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재료 준비와 조리, 판매, 고객 응대까지 음식점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며 창업 경험을 쌓고 있다.

앞서 학생들은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 참가해 직접 개발한 국밥을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며 첫 현장 경험을 쌓았



<사진=순창군>

다. 현재는 발효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밥을 판매하며 실제 외식업 창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과 연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순창군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해 차별화된 먹거리를 개발하고,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군은 삼대장국밥이 단순한 음식 판매 공간을 넘어 순창의 전통 식문화와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함께 알리는 새로운 미식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순창의 전통 장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먹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군은 앵커사업을 이끌고 있는 우석대학교 박기홍 교수팀과 협력해 청년창업 실험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메뉴 개발부터 실전 창업,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미식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올해 마지막 단체 헌혈...푸드트럭 뜬다

29일 군청 민원인주차장서 진행 굽네 푸드트럭서 치킨·피자 제공

완주군이 오는 29일 완주군청 민원인주차장에서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마지막 '사랑의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이번 단체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 장기 보관이 불가능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굽네치킨

푸드트럭이 동참해 헌혈 참여자들에게 갓 구운 치킨과 피자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열기를 더한다.

헌혈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한다. 헌혈에 참여하려는 군민과 공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전 문진과 건강상태 확인을 거친 뒤 동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단체헌혈을 통해 공직자와 군민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올해 마지막 단체헌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따뜻한 생명나눔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반딧불시장 가을밤 열기 예고

무주반딧불시장 ‘농부장터·나이트마켓(야시장)’이 ‘2026 무주군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과 무주반딧불시장상인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가을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농부장터 15개, 야시장 상인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3일부터 25일까지 ‘농부장터·나이트마켓(야시장)’이, 24일과 25일에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개최된다.

‘농부장터(10:00~17:00)’에서는 사과, 포도, 가을철 농산물 등 무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농특산물의 경매와 시식·시음 행사 등이 열리며, ‘나이트마켓(야시장 18:00~21:00)’에서는 통기타·트롯트 가수 공연을 군민 노래방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야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할 어죽, 국밥, 파베기 등의 먹거리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 실시

장수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경찰서와 차량 번호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세입징수팀과 교통팀, 징수경찰서 교통관리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군은 공개 채용한 체납관리단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했다. 주로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 등을 살폈다.

군은 고의적·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와 공매 등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토마토빨나방 방제 현장점검…‘영품 토마토’ 총력

진안군이 토마토빨나방 피해 예방과 고품질 토마토 안정 생산을 위한 방제약제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관내 토마토 재배 39농가, 19.5ha를 대상으로 토마토빨나방 방제약제 지원 농가 현장점검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과 읍·면별 농업인상담소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조사 내용은 토마토 재배농가의 방제약제 살포 여부와 토마토빨나방 발생 실태 등이다.

군은 지난 3월 토마토빨나방 방제를 위해 액선폴, 에이팜 등 방제약제를 농가에 공급했으며, 농가에서는 해충 확산에 대비해 4월부터 방제 작업을 실시해 왔다.

토마토빨나방은 토마토 잎과 줄기, 과실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초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빠르게 확산돼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방제 실태를 확인하고,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강화와 적기 방제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지역 중소기업체 지원 강화

공공발주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내 입찰 적극활용 등

임실군이 공공발주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공공발주 지역 우선 구매제’를 추진한다.

임실군 민선 9기 대표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발주 지역 우선 구매제’는 공공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건설종기·물품 구매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해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내 입찰을 적극 활용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이행 서약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 지역 상권 이용 계획서’제출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관내 입찰을 적극 활용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확대 및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건설종기·물품 등 지역 업체 이용 상시 권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 ‘무료 안전컨설팅’

5~50인 미만사업장 대상

임실군이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무료 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임실군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현장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제조업·수리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사항 안내를 비롯해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지도,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관리, 기계·설비 안전상태 확인 등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임실군은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컨설팅 결과와 개선사항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말까지 임실군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 사업장 선정 후 방문 일정을 협의해 현장 컨설팅은 실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기본소득 거주지 무관 업종 확대

문구점·세탁소 2개 추가

진안군은 지난 20일 군정 부군수실에서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사용자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첫 번째, 읍에 인접한 면 중 인구 및 사용처가 적은 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자 생활권 변경, 두 번째,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업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 안건 대상지인 상전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자 생활권 변경은 주민이용 편의와 현장의 건 등을 고려해 현행 읍·면 분리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적용 중인 읍·면 분리형은 면민이 읍에서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까지 총 5개 업종에 대하여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각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 금액은 합산 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읍·면 통합형을 선택할 경우 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최대 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5대 업종(변경 7대 업종)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상전면 주민들은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면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과 면민의 기본소득 이용 활성화 및 생활권의 제고를 위한 실익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 분리형을 선택해 거주지 무관 금액 제한 없는 7대 업종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추가 업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개(문구점, 세탁소, 군지역 생활체육시설, 출산육아용품점, 서점)의 업종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사전 군민 설문 결과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구점과 세탁소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가 추가돼 총 7개 업종에 대하여 면민도 읍에서 금액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업종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과 절차에 맞춰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고원푸드페스타’ 24~25일 개막

정호영·박은영 셰프 배틀 등

진안군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안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026 진안고원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진안으로 GO! 음식으로 ONE!’을 슬로건으로, 청정 진안고원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미식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4일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진안 농산물을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가 열린다. 이어 스타 셰프 정호영·박은영이 진안 식재료를 활용해 즉석 요리 대결을

펼치는 ‘셰프 라이브 배틀’이 진행돼 현장 시식단 100인의 평가를 통해 승자를 가린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청와대 총괄조리장 출신 천상현 셰프가 진안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한 상을 선보이는 ‘고원미식회(치유한상)’가 마련된다. 이어 요리 유튜브 ‘취요남’이 진안 흑돼지 감도야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고원 한입쿠링쇼’가 진행된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고원시장과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가투자지방회생으로 충당말라

무주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를 경고하고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및 확충’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희용 행정복지위원장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게 지방교부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필수 자원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국제세수 결손으로 막대한 지방교부세가 축소돼 무주군을 비롯한 수많은 지자

체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감내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해진 지방재정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던 전국 지자체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산정대상인 내국세를 줄이면 지방에 배분될 보통교부세를 사실상 축소하는 편법 재정개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회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체전서 금 2개·동 1개

임실군청 사격팀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임실군청 사격팀은 선수 3명(김예림, 이시윤, 추가은)이 전북 대표로 출전해 10m 공기권총과 25m 화약권총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이시윤 선수가 본선 585.0점(22X), 결선 243.7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추가은 선수는 본선 576.0점(21X), 결선

218.3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우리은행 양지인 선수도 결선에서 239.1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서도 전북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실군청 소속 이시윤·추가은·김예림 선수와 양지인 선수가 함께 출전한 전북 대표팀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정상에 올랐다.

25m 화약권총 개인전에서는 양지인 선수가 본선 587.0점(23X), 결선 40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창단 첫째 ‘3위’ 패기

창단 9개월 만에 전국체전 입상
여자 일반부 단체전 3위 기록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테니스선수단 임은지, 김민서, 이현이 선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22일 창단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창단 약 9개월 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했



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며, 선수단은 창단 이후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경기 경험을 쌓고 꾸준히 기량을 끌어올렸으며,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투지를 바탕으로 값진 결실을 맺었다.

/진안=전길빈 기자



국악인 김준수
정읍시 홍보대사 합류

정읍시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인 김준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21일 김준수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패 수여와 기념 촬영, 환담 등이 진행됐다.

김준수 씨는 국립장극단 출신으로 창극 무대와 '불후의 명곡', '현역가왕'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활동해왔다. 전통 국악의 맥을 이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예술적 행보가 전통 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정읍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김준수 씨의 매력이 정읍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변산면 지사협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 나눔 행사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지동경로당에서 특화사업 행복밥상 어르신 정서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정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의체 예산으로 짜장밥 재료를 구매하여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어촌신활력사업소 '오토'와 부안군체육회 관계자들이 직접 조리해 참여해 봉사의 손길을 보이며 훈훈한 나눔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면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외플을 만들어 디저트로 대접하며, 식사 후에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정성 가득한 식사도 고맙지만, 이렇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챙겨주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제4호 명장 수산양식 분야조정규 씨 선정

종어(宗魚) 양식 성공 등
내수면 양식기술 발전 공로

김제시는 지난 20일 2026년 김제시 제4호 명장으로 수산양식 분야의 조정규 씨(사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규 명장에게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조정규 명장은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의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숙련기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김제시 명장심사위원회

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제4호 명장으로 확정됐다.

조정규 명장은 지난 1990년부터 고향 김제에서 메기와 동자개 양식에 매진해 온 수산양식 분야의 숙련기술인이다. 특히 1996년 국내 최초로 동자개 인공부화 성공

하였으며, 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랐던 고급 어종인 종어(宗魚)를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완전양식에 성공했으며, 현재 안정적인 치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내수면 어업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도에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도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조정규 명장은 30년 넘게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양식 현장을 지키며 대한민국 내수면 어업 발전에 앞장서 온 숙련기술인"이라며, "앞으로도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지역의 후배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김제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수년간 이어져 온 선행

부안군은 21일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이광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광희 지사장을 비롯해 한광석 농지은행관리부장, 김경환 농어촌사업부장, 방혁주 수자원관리부장, 박지연 고객지원부장 등 주요 임직원 6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의 이번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이

여져 온 남다른 선행이라는 점에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부안지사는 앞서 2024년 370만원, 2025년 53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보다 늘어난 600만 원을 전달하며 3년 연속으로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에 따뜻한 연대와 상생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은 21일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진안 부귀면, 100세 어르신께 '청려장' 전달

진안군 부귀면은 지난 19일, 2026년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신 어르신께 장수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전달하고 백세 장수를 축하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단순한 보행 보조용품을 넘어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왔다.

이번 청려장 전달은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년경 부귀면장은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며 "경로효친 정신을 이어받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심과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 기업 2곳, 녹지환경 조성에 힘 보태

익산 지역 기업과 자활센터가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조성에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21일 (유)성현산업과 (주)GNS엔지니어링이 팔봉 주민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익산지역자활센터에 전달돼 맥문동 구입에 사용된다. 익산지역자활센터 역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자활근로

인력을 지원해 11월까지 팔봉 주민센터 내 900㎡ 부지에 맥문동을 식재한다.

이번 사업은 두 기업의 후원과 자활센터의 인력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과 자활센터가 각각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 상생이라는 ESG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관촌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앓 고추장 만들기'

임실군 관촌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7일 관촌 문화의집 옆 주차장에서 '사랑앓 고추장 만들기' 행사를 열고 정성껏 만든 고추장을 1kg씩 포장해 관내 소외계층 100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부녀회원들의 정성과 봉사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금자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고추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지현 면장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신 새마을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없이 모두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군 김양기 씨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0일 김양기씨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양기씨는 제42회 고창군 군민의장 수상자로, 현재 성내면 노인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김양기씨는 "고창군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심택섭 이사장은 "김양기 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고창군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안전한 폐배터리류 올바른 배출이 필요합니다!

폐배터리 배출방법

혼합배출금지

방전 후 배출

원형 배출

절연 조치

충격 방지

전용수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

천만송이 국화 새롭게 활짝 피입니다

익산의 가을을 대표하는 초대형 규모의 꽃 축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익산 대전환'의 비전을 품고 도심 전역을 물들이는 명품 축제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익산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간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근린공원, 익산역 일원에서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수준 높은 국화 조형물 전시는 11월 8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축제는 '글로우 익산(GLOW IKSAN), 보석처럼 새롭게 빛나는 익산'을 주제로 내걸었다. 단순한 꽃 감상을 넘어 도시의 공간과 시간, 산업과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익산 대전환'을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도록 축제 전반을 5대 전략으로 전면 재편했다.

〈편집자 주〉



◆ 보석도시 정체성 입힌 5대 컬러마케팅 대전환

'보석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꽃과 결합해 타 지자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창적인 시각적 브랜드를 구축했다.

주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의 화려한 색채를 살린 테마 정원으로 연출했다. 신흥공원은 싱그러운 녹색빛 '에메랄드존', 익산역은 10월의 보석을 상징하는 주홍빛 '토파즈존'으로 각각 차별화해 도시 곳곳에 보석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10월 23일부터 열흘간 개최

5대 보석 컬러마케팅·야간 빛정원

고구마 엮은 농업관광 육성

1백여 개 상생 부스·골목 소비 연계

◆ 낮에는 국화, 밤에는 빛... 체류형 야간관광 대전환

올해 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참여형 축제를 지향한다. 시민 라디오 DJ,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익산시에술인총연합회의 깃발전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낮의 화려함이 밤의 낭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대폭 보강해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한다.

관람객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조명과 국화빛 터널, 천사의 계단, 멜로디박스 등 이색 조형물을 곳곳에 세웠다.

밤마다 EDM 파티와 동춘서커스가 펼쳐지며 오는 31일에는 불꽃놀이와 청년 기획자들이 직접 만드는 이리오락(Rock) 페스타 토크콘서트 가 가을밤을 수놓는다.

◆ 특산물 고구마 결합... 농업을 명품 관광상품으로 대전환

단순 농산물 판매 방식을 탈피해 먹고 즐기는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농업의 영역을 확장했다.

'고구마 놀이터'에서 고구마캐기, 고구마 옮기기 등 참여형 놀이를 열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를 비롯해 다양한 고구마 가공식품을 소개한다. 특히 2026 대한민국 증류주 대상을 받은 고구마 소주 '리28'도 선보여 눈길을 끌 예정이다.

코레일과 연계한 '1박 2일 농촌관광 열차 상품'을 운영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신품종 화훼 전시를 더해 첨단 농업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 100여 개 부스·골목 소비 연계로 지역경제 대전환

축제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사회 골목골목으로 고스란히 환원되는 선순환 상생 경제망도 구축한다.

지난해 국화축제에는 7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축제 흥행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등 97개 부스 업체가 총 2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는 농가와 기업 등 100여 개 단체가 농특산물, 보석, 먹거리 등 5개 테마관에 참여하고, 전시 화훼류는 지역 농가와 자활센터의 계약재배로 조달해 이미 3억 원의 농가 소득을 뒷받쳤다.

지역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국화를 선물하는 '마(시고)·먹(고)·자(고)'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의 지갑이 원도심 상권으로 열리도록 이끈다.

◆ 스마트 재배 기술력 투입... 기후위기 극복·예산 절감 대전환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고온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축적된 기술력을 투입해 개막일 기준 80% 이상의 안정적인 개화율을 목표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우스 냉난방기를 정비하고 암막스크린을 보강하는 등 세밀한 환경 조절로 위기를 극복했다.

올해 전시된 국화 조형작품은 현장 근로자와 20여 명의 직원이 직접 지난해 11월부터 국화를 재배하고 조형물로 만들어 외부 용역비를 줄이는 등 알뜰하고 탄탄한 축제 운영을 실현했다.

류숙희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민선 9기 '익산 대전환'은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농가, 소상공인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도시의 활력을 함께 키워가는 실천 과정"이라며 "꽃과 보석, 빛과 농업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에게는 드높은 자부심을,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